

교훈가



[해제]

동학의 교조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득도 후 교리를 펴기 위해 지은 동학 포교가사이다. 1860년대 초에 제작된 것으로, 그 정확한 시기는 철종 11년(1860) 또는 철종 12년(1861)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담유사(龍潭遺詞)의 필사 이본에 이른바 ‘유사팔편(遺詞八篇)’이라 지칭되는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도수사(道修詞)>, <권학가(勸學歌)>,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중의 한 작품으로 실려 있다. 길이는 4음보 1행 기준 전체 227행으로, 용담유사 작품 중 가장 길다.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① 작자가 자질들에게 자신의 사십 평생 및 구미 용담 입산수도(入山修道)의 내력을 설명함, ② 한울님께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내려 받고 천하포덕(天下布德)할 것을 당부 받음, ③ 부처가 마주하며 기뻐하고 이욕고 현인군자(賢人君子)를 모아 포덕에 나섬, ④ 주위의 흉언괴설(凶言怪說)과 비방 끝에 결국 수천 리 길을 떠나게 됨, ⑤ 떠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정심수도(正心修道)할 것을 당부하며 이 글을 쓴 동기를 밝힘이 그것이다. 이 <교훈가>가 실린 필사 이본 용담유사의 형태는 한지에 각 면 세로 10행, 각 행 24자 내외의 세필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 32장 64면이다. ‘가사 팔편’의 수록 순서는 <교훈가>, <안심가(경신, 1860)>, <용담가(경신)>, <몽중노소문답가(신유, 1861)>, <도수사(신유)>, <권학가(임술, 1862)>, <도덕가(임술)>, <흥비가(계해, 1863)>순으로 되어 있다. 작품 이름 밑에는 간지로 창작 연도가 부기되어 있어 연구에 참고가 된다. 필사자와 필사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사 방식은 줄글체로 되어 있으며, 4음보 1행을 기준 삼아 행과 행 사이에는 ‘○’의 구분 표지가 삽입되어 있다. 군데군데 글자의 순서가 바뀌거나, 유사한 음으로 베끼는 오류가 눈에 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용담유사라는 책의 표제와 첫 번째 수록 작품인 <교훈가>의 제목 및 앞부분을 기록하였을 첫장이 낙장되고 없어 지금 이 필사 이본의 전모를 다 볼 수는 없다. 책의 맨 뒷장 겉면에는 ‘가사 종’이라 적혀 있다. 그런데 다른 이본을 참고해 보면 낙장 누락된 <교훈가>의 앞부분은 제14행의 중간 부분까지이다. 위에서 밝힌 작품의 길이는 누락된 14행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원문]

(제14행의 중간까지 낙장 누락)

박고 다시읍다

구미용담 차저드려 중훈잉세 다시하고

부처가 마쵸안자 탄식하고 하난말니

大丈夫 四十平生 히옵시 지닌난니

이져야 할겘읍니 자호일흠 다시지여

不出山外 잉세후이 기의심장 안일년가

슬푸다 니닌신명 니리될줄 아러쓰면

윤사년 고사하고 부모임게 바든세업

근력기중 후여쓰면 惡衣惡食 면치만은

경윤니나 잇난다시 효박흔 니世上의

혼자아자 탄식하고 그력저력 하다가서

탕픽산업 되야쓰니 원망도 쓸디업고

훈탄도 쓸디읍니 女必從夫 안일년가

자닌역시 자아시로 好衣好食 하던말을

일시도 안니말면 부화부순 무어시며
강보의 어린자식 불인지사 안일년가
그말저말 다던지고 차츰차츰 지늬보세
天生万民 ㅎ여쓰니 필수기덕 할기시오
명니在天 ㅎ여쓰니 죽을염녀 웨잇씨며
할날임니 사람닐제 녹읍시난 안니늬네
우리라 무슨팔자 그딤지 괴험할고
부ㅎ고 귀한사람 이전시절 부귀로세 빈천니요
빈ㅎ고 천한사람 오난시절 부귀로세
天運니 순環ㅎ샤 無往不復 ㅎ시나니
그러나 이늬집은 적션적덕 ㅎ나공은
자전제자시 고연니라 餘慶늬들 업실쇼냐
世世유전 착한마음 일치말고 직켜늬셔
安貧樂道 ㅎ온후의 修身齊家 ㅎ어보세
아모리 세상사람 비방ㅎ고 원망말을
聽而不聞 ㅎ어두고 불의지사 흥한밋칠
示之不見 ㅎ어두고 언린자식 효유히셔
익익사사 교훈히여 어진일을 본을바다
가정지업 직켜늬면 그안니 樂일던가
이러그러 안심히셔 七八朔 지늬난니
솜일년가 잠니년가 無極大道 바더늬여
正心修身 ㅎ온후의 다시안져 싱각하니
우리집안 餘慶늬가 순環지리 회복인가
엇지니리 망극ㅎ고 前万古 後万古을
력력키 싱각히도 글도업고 말도업늬
딤져싱영 만한사람 사람업셔 니려ㅎ가
유도불도 누철연의 운니역시 다히션가
윤희갓치 돌닌운슈 니가엇지 바더시며
億兆蒼生 만한사람 니가엇지 놀퍼시며
一世上 업난사람 니가엇지 잇셔던고
아마도 니늬일은 잠자다가 어더션가
솜수다가 바더션가 총양치 못할네라
사람을 가여려씨면 나만못ㅎ 사람니며
직질을 가려쓰면 나만못한 직질니며
萬端疑訝 두지만은 할날임니 정ㅎ시니
무가니라 할길업늬 식양지심 잇지만은
어딤가셔 식양ㅎ며 문의지심 잇지만은
어딤가셔 문의ㅎ며 편언척자 업난법을

어디가서 본을볼소 묵묵부답 싱각하니
 고친자호 방불하고 어린다시 안저시니
 고친일을 분명하다 그력적력 할길업셔
 업난정신 가다드며 하늘임계 알외오니
 할날님 후신말삼 너도역시 사람니라
 무엇슬 아러시며 억조창싱 만한사람
 同軀一體 후난줄을 四十平生 아러썬야
 우습다 자니사람 百千萬事 헝할씩난
 무슨뜻슬 그러하며 입산흔 그달부름
 자효일흠 곳칠씩난 무슨뜻슬 그러하고
 소위立春 비난말은 복녹은 안니빌고
 무슨경운 표부잇셔 世間衆人 不同軀라
 의심업시 지여닉여 완연니 붓체든니
 세상사람 귀경할씩 자니마음 웃셔턴고
 그런비위 어딤두고 만고읍난 無極大道
 바다노코 자양랑흔니 그안니 기자한가
 세상사람 도라보고 만고만한 그사람의
 인지질질 갈려닉여 총명노둔 무어시며
 세상사람 저러하여 疑訝탄식 무엇신고
 남만못한 사람닌줄 네가엇지 아러씨며
 남만못한 직질닌줄 네가엇지 아잔말고
 그런소리 말려셔라 낙지니후 첨이로다
 착흔운슈 돌너노코 포티지슈 정히닉여
 自兒時 자라날씩 어닉일을 닌모으며
 적세萬物 하난법과 킷천만사 헝헝길을
 죠화중의 식켜시니 出等人物 후난니난
 비비유지 안니년가 지긋 읍난사람
 원흔다시 할난말리 아무난 니世上의
 직승박덕 안닐년가 세전산업 탕티하고
 구미용담 일정각의 不出山外 후난뜻슨
 아다가도 모를네라 가난흔 저시정의
 세상사람 한티석계 아유구용 후다히도
 쳐지보명 모르고셔 가장지업 직켜닉여
 안빈낙도 하단말은 가笑絶창 안닐너가
 니말저말 분등히도 닌가아지 네가알가
 그런싱각 두지말고 정심슈도 해여셔라
 시긴뒤로 시헝히셔 차츰차츰 가라치면
 무궁죵화 다던지고 포덕천하 흘거신이

차제도업 그뿐일세 법을증코 글을지여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름 君子되여
 무위니화 될거시니 지상신선 네안니야
 니말숨 들른후의 心獨喜 自負로다
 그제야 니날부름 부처가 마조안저
 이말저말 다흔후의 喜喜樂樂 그뿐일세
 이제난 자넨듯쇼 이니몸니 이리되니
 자쇼시 하던작난 여광여취 안일년가
 닌역시 하던말리 헛말리 올케되니
 남의역시 즐세후의 작난도 할거시요
 헛말인들 안이할가 자네마음 엇더한고
 老妻의 거동보쇼 문난말은 玆답잔코
 무릅안고 입다시며 세상소리 셔너마되
 근근니 쓰러니여 천장만 살피면서
 쏜일년가 잠일런가 허허세상 허허세상
 다갓치 세상사람 우리복니 일어할가
 할날님도 하날도님 이리될 우리신명
 엇지압날 지닌고심 그되지 시기신고
 오날사 참말닌지 여광여취 저양반을
 간곳마다 짜라가셔 지질흔 그고심을
 놀노되히 그말리니 며그중의 집의들면
 장담갓치 訶난말리 그사람도 그사람도
 고상니 무엇신고 니니팔조 죠홀진디
 喜樂은 벗슬삼고 고상은 희락이라
 잔말말고 짜려가세 공노할 닌안이라
 닌역시 어척업셔 얼굴을 썸니보며
 중심의 한심지여 니적 지닌일은
 다름 안니로다 衒物되법 訶난거동
 세상사람 안이듯고 처자의게 訶난거동
 니니진정 지극하니 천은니 잇거더면
 죠흔운슈 회복홀줄 나도또한 아라썸니
 一笑一罷 訶온후의 불승기야 되여더라
 그력저력 지다닌가 통기중문 訶여두고
 오난사람 가라지니 불승감당 되여찌라
 賢人君子 모와드라 明明其德 訶여니니
 성운성덕 분명하다 그모로난 세장사람
 勝己者 시려할줄 무근설화 지여니어
 듯지못한 말리며 보지못한 그쇼리를

엇지그리 자어니셔 형안설화 분분하고
 슬푸다 세상사람 니운슈 죠타하니
 네의운슈 가련할줄 네가엇지 아잔말고
 가연련하다 경주향중 무닌지경 분명하다
 어진사람 잇거더면 니련말리 웨닛며쓰
 향중풍속 다던지고 니닉문운 가련하다
 아도못흔 흥언괴설 남보다가 빅나하며
 육친니 무삼일고 원슈가치 디접하며
 살부지슈 닛셔썩가 엇지그리 원슈런고
 은원업시 지닌사람 그중의 싸잡퍼셔
 쏘역시 원슈되니 죠걸위학 이안닌가
 아모리 그리히도 죄업시면 그썩일세
 아모리 그리하나 나도세상 사람으로
 무단니 사죄업시 모함중의 드단말가
 니운슈 안닐네면 무죄흔들 면할쇼야
 하물며 니닉집은 과문지취 안닐넌가
 아셔라 이닉신명 운슈도 밋지만은
 감당도 어려오되 남의이목 살퍼두고
 이갓치 안니말면 세상을 능멸흔듯
 관장을 능멸흔듯 무가니라 할길음니
 무극흔 니닉도난 닛안니 가려쳐도
 운슈닛난 그사람은 차차차차 바다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닛업셔도 당힉닐세
 향장을 차려니여 슈철니을 경영하니
 슈도흐난 사람만다 성지우성 하지만은
 모의미성 너의덜은 엇지하고 가잔말고
 니질도리 전예읍셔 만단효유 하지만은
 차마못흔 이닉회포 역지사지 하여씨라
 그러나 할길업셔 일쵸부리 되여씨라
 멀고면 가난길의 칭각난니 너의로다
 직지의 외로안져 엇던씨난 칭각나셔
 너의슈도 흐난거동 귀예도 칭칭하며
 누의도 삼삼하며 엇씨씨난 칭각나셔
 일사위법 흐난밋치 논의도 거살치며
 귀예도 들니난듯 아마도 너의거동
 일사위법 분명하다 명명흔 니운슈난
 원한다고 이려하며 바란다고 이려할가
 아셔라 너의거동 안니봐도 보난듯다

父子有親 닛지만난 운슈쵸차 有親이며
 兄弟一身 닛지마난 운슈쵸쵸차 一身인가
 너의역시 사람니면 남의슈도 Һ난법을
 응당니 보지마난 엇지그리 ㅁ물한고
 지직업난 니것더라 남의슈도 本을바더
 誠之又誠 공경 Һ서 正心修身 하여쓰라
 아모리 Һ려하도 이닌몸니 이리되니
 은덕니야 잇지만은 도成立德 Һ난법은
 Һ가지난 정성니요 Һ가지난 사람니라
 父母의 가라치물 안니똥고 냥유 Һ면
 禽獸의 가즉 Һ고 자칭자직 안일년가
 우습다 너니사람 나난도시 모를네라
 父子兄弟 그가은되 道成立德 各各니라
 大抵世上 사람중의 정성닛난 그사람은
 어진사람 분명 Һ니 작심은로 本을보고
 정성공경 업단말가 이달 Һ다 너의덜은
 출등 Һ 현인덜은 바랄줄 안니로되
 사람의 아릭되고 道德의 못밋치면
 자작지 얼이라도 나눈쑤 Һ니로다
 운슈야 쵸컨이와 닥그야 道德니라
 너의라 무신팔자 불노득 되단말가
 Һ음업난 니거더라 날노밋고 Һ려 Һ야
 나눈도시 밋지말고 Һ날임을 밋더셔라
 네몸의 모셔쓰이 사근취원 Һ단말가
 닛역시 발라기난 Һ날님만 전 Һ밋고
 Һ몽못한 너의덜은 서척은 아쵸페고
 修道하기 심씨기난 그도쑤 道德니라
 文章니고 道德니고 귀어 Һ사 될가보다
 열시자 지극하면 萬卷詩書 무엇 Һ며
 心學이라도 하여시니 불망기의 하여씨라
 賢人君子 될거신니 道成立德 못밋칠가
 니갓치 슈운道을 자포자기 Һ단말가
 이달다 너의사람 엇지그리 ㅁ물 Һ고
 탄식하기 괴름도라 堯舜가튼 성현덜도
 불초자식 두어시니 Һ홀거시 업다마난
 우선의 보난도러{리} 울울 Һ니니회포
 금초 Һ이 난감이요 두자 Һ니 이달 Һ셔
 강작히 지은문자 귀귀자자 살피니여

병방탕지심 두지말고 이니경계 바드니여
서로만날 그시절의 팔목상디 되거더면
길겁기난 고사하고 이니집안 큰운슈라
이글보고 기과후여 날본다시 슈도하라
부디부디 이글보고 남과갓치 후여쓰라
너의역시 그럿타가 未來之事 불민후면
날노보고 원망할가 니역시 니글전히셔
효형엄시 되거더면 네신슈 가련후고
이니말 헛말되면 그역시 슈치로다
너의역시 사람니면 싱각싱각 할가

안심가

현속훈 니집부여 이글보고 안심후쇼
大抵싱영 草木群生 死生在天 안일년가
하물며 만물지간의 유인니 취령일네

[현대역]

(제14행의 중간까지 낙장 누락)

밖에 다시 없다.

구미 용담1 찾아들어 중한 맹세 다시 하고

부처(夫妻)가 마주 앉아 탄식하고 하는 말이,

대장부 사십 평생 하염없이 지냈나니

이제야 할 길 없네. 자호(字號) 이름2 다시 지어

불출산외(不出山外) 맹세하니, 기의심장(其意深長) 아닐런가.

슬프다 이내 신명(身命)3. 이리 될 줄 알았으면

윤산(潤産)4은 고사하고, 부모님께 받은 세업(世業)

근력기중(勤力其中)5 하였으면 악의악식(惡衣惡食)6 면치마는,

경륜이나 있는 듯이 효박(淸薄)한7 이 세상에

혼자 앉아 탄식하고, 그럭저럭 하다 가서

탕패산업(蕩敗産業)8 되었으니, 원망도 쓸 데 없고

한탄도 쓸 데 없네. 여필종부(女必從夫) 아닐런가.

자네 역시 자아시(自兒時)로9 호의호식(好衣好食) 하던 말을

일시도 아니 말면 부화부순(夫和婦順)10 무엇이며,

강보의 어린 자식 불인지사(不忍之事)11 아닐런가.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차차차차 지내 보세.

천생만민(天生萬民)12 하였으니 필수기덕(必授其德)13 할 것이요,

명내재천(命乃在天)14 하였으니 죽을 염려 왜 있으며,

한울님15이 사람 낼 제 녹(祿)16 없이는 아니 내네.

우리라 무슨 팔자 그다지 기험(崎險)17할까.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貧賤)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富貴)로세.

천운(天運)이 순환하여 무왕불복(無往不復)18 하시느니,

그러나 이내 집은 적선적덕(積善積德)19 하는 공은

자전자시(自前自是)20 고연(固然)이라 여경(餘慶)인들 없을쏘냐.

세세유전(世世遺傳)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지켜내서

안빈낙도(安貧樂道) 하온 후에 수신제가(修身齊家) 하여 보세.

아무리 세상 사람 비방하고 원망 말을 해도

청이불문(聽而不聞)21 하여 두고, 불의지사(不義之事) 흉한 빛을

시지불견(示之不見)22 하여 두고, 어린 자식 효유(曉諭)23해서

매매사사(每每事事) 교훈하여, 어진 일을 본을 받아

가정지업(家庭之業) 지켜내면 그 아니 낙이던가.

이러 그러 안심해서 칠팔삭(七八朔)24 지내나니,

꿈이런가, 잠이런가. 무극대도(無極大道)25 받아 내어

정심수신(正心修身)26 하온 후에 다시 앉아 생각하니,

우리 집안 여경(餘慶)인가. 순환지리(循環之理) 회복인가.
 어찌 이리 망극하고. 전만고(前萬古) 후만고(後萬古)를²⁷
 역력히 생각해도 글도 없고 말도 없네.
 대저 생령(生靈) 많은 사람, 사람 없어 이러한가.
 유도(儒道) 불도(佛道)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운회같이 돌린 운수 내가 어찌 받았으며,
 억조창생(億兆蒼生) 많은 사람 내가 어찌 높았으며,
 일세상(一世上) 없는 사람 내가 어찌 있었던고.
 아마도 이내 일은 잠자다가 얻었던가.
 꿈꾸다가 받았던가. 측량치 못할레라.
 사람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사람이며,
 재질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만단의아(萬端疑訝)²⁸ 두지마는 한울님이 정하시니,
 무가내(無可奈)²⁹라 할 길 없네. 사양지심(辭讓之心)³⁰ 있지마는
 어디 가서 사양하며, 문의지심(問議之心)³¹ 있지마는
 어디 가서 문의하며, 편언척자(片言隻字)³²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볼꼬. 묵묵부답(默默不答) 생각하니
 고친 자호(字號) 방불하고, 어린 듯이 았았으니
 고친 이름 분명하다. 그럭저럭 할 길 없어
 없는 정신 가다듬어, 한울님께 아뢰오니
 한울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同歸一體)³³ 하는 줄을 사십 평생 알았더냐.
 우습다, 자네 사람. 백천만사(百千萬事) 행할 때는
 무슨 뜻을 그러하며, 입산한 그 달부터
 자호 이름 고칠 때는 무슨 뜻을 그러하고.
 소위 입춘(立春) 비는 말은 복록(福祿)은 아니 빌고,
 무슨 경륜 포부 있어 세간중인(世間衆人) 부동귀(不同歸)³⁴라
 의심 없이 지어 내어 완연히 붙여 두니,
 세상 사람 구경할 때 자네 마음 어떨던고.
 그런 비위(脾胃)³⁵ 어디 두고 만고 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
 받아 놓고 자랑하니, 그 아니 개제(愷悌)³⁶한가.
 세상 사람 돌아보고 많고 많은 그 사람의
 인지재질(人之才質) 가려내어 총명노둔(聰明魯鈍)³⁷ 무엇이며,
 세상 사람 저러하여 의아(疑訝)³⁸ 탄식 무엇인고.
 남만 못한 사람인 줄 네가 어찌 알았으며,
 남만 못한 재질인 줄 네가 어찌 안단 말고.
 그런 소리 말아서라. 낙지이후(落地以後)³⁹ 침이로다.

착한 운수 돌려놓고 포태지수(胞胎之數)40 정해 내어
 자아시(自兒時) 자라날 때 어느 일을 내 모르며,
 격치만물(格致萬物)41 하는 법과 백천만사(百千萬事) 행하기를
 조화(造化) 중에 시켰으니, 출등인물(出等人物)42 하는 이는
 비비유지(比比有之)43 아닐런가. 지각없는 사람
 원한 듯이 하는 말이, 아무는 이 세상의
 재승박덕(才勝薄德)44 아닐런가. 세전산업(世傳產業) 탕패(蕩敗)하고
 구미 용담 일 정각에 불출산외(不出山外)하는 뜻은
 알다가도 모를레라. 가난한 저 시정(市井)의
 세상 사람 한데 섞여 아유구용(阿諛苟容)45 한다 해도,
 처자보명(妻子保命) 모르고서 가정지업(家庭之業) 지켜 내어
 안빈낙도 한단 말은 가소절장(可笑絕腸)46 아닐런가.
 이 말 저 말 분등해도 내가 알지 네가 알까.
 그런 생각 두지 말고 정심수도(正心修道) 하여서라.
 시킨 대로 시행해서 차차차차 가르치면
 무궁조화 다 던지고 포덕천하(布德天下)47 할 것이니,
 차례도업(次第道業)48 그뿐일세. 법을 정코 글을 지어
 입도(入道)한 세상 사람, 그 날부터 군자(君子)되어
 무위이화(無爲而化)49될 것이니, 지상 신선 네 아니냐.
 이 말씀 들은 후에 심독희(心獨喜) 자부(自負)로다50.
 그제야 이 날부터 부처가 마주 앉아
 이 말 저 말 다한 후에 희희낙락(喜喜樂樂) 그뿐일세.
 이제는 자네 들소. 이내 몸이 이리 되니
 자소시(自少時)51 하던 장난 여광여취(如狂如醉)52 아니런가.
 내 역시 하던 말이 헛말이 옳게 되니
 남아 역시 출세(出世)53 후에 장난도 할 것이요,
 헛말인들 아니할까. 자네 마음 어떠한고.
 노처(老妻)의 거동 보소. 묻는 말은 대답치 않고
 무릎 안고 입 다시며, 세상 소리 서너 마디
 근근이 끌어 내어, 천장만 살피면서
 꿈일런가, 잠일런가. 허허 세상. 허허 세상.
 다 같이 세상 사람 우리 복이 이러할까.
 한울님도 한울님도 이리 될 우리 신명,
 어찌 앞날 지낸 고생 그다지 시키시고.
 오늘사 참말인지 여광여취(如狂如醉) 저 양반을
 간 곳마다 따라가서, 지질한 그 고생을
 누굴 대해 그 말하며, 그 중에 집에 들면
 장담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고생이 무엇인고. 이내 팔자 좋을진대
 희락(喜樂)은 벼를 삼고 고생은 희락이라.
 잔말 말고 따라 가세. 공로(空老)⁵⁴할 내 아니라.
 내 역시 어이없어 얼굴을 뺨히 보며
 중심(中心)⁵⁵에 한숨 지어 이제껏 지낸 일은
 다름 아니로다. 인물 대접하는 거동
 세상 사람 아니 듣고, 처자에게 하는 거동
 이내 진정 지극하니, 천은(天恩)이 있게 되면
 좋은 운수 회복할 줄 나도 또한 알았습네.
 일소일파(一笑一罷)⁵⁶ 하온 후에 불승기양(不勝其揚)⁵⁷ 되었더라.
 그럭저럭 지내다가 통개중문(通開中門)⁵⁸ 하여 두고,
 오는 사람 가르치니 불승감당(不勝堪當)⁵⁹ 되었더라.
 현인군자(賢人君子) 모여 들어 명명기덕(明明其德)⁶⁰ 하여 내니
 성운성덕(盛運盛德) 분명하다. 그 모르는 세상 사람,
 승기자(勝己者)⁶¹ 싫어할 줄 무근설화(無根說話)⁶² 지어 내어,
 듣지 못한 말이며 보지 못한 그 소리를
 어찌 그리 지어 내서 향(鄉) 안 설화 분분하고.
 슬프다, 세상 사람. 내 운수 좋다 하니
 너의 운수 가련할 줄 네가 어찌 안단 말고.
 가련하다, 경주 향중(鄉中)⁶³. 무인지경(無人之境)⁶⁴ 분명하다.
 어진 사람 있게 되면 이런 말이 왜 있으며,
 향중 풍속 다 던지고 이내 문운(門運)⁶⁵ 가련하다.
 알도 못한 흉언괴설(凶言怪說)⁶⁶ 남보다도 배나 하며,
 육친(肉親)⁶⁷이 무슨 일로 원수 같이 대접하며,
 살부지수(殺父之讐)⁶⁸ 있었던가. 어찌 그리 원수던고.
 은원(恩怨)⁶⁹ 없이 지낸 사람 그 중에 싸잡혀서
 또 역시 원수 되니 조걸위학(助桀爲虐)⁷⁰ 이 아닌가.
 아무리 그리해도 죄 없으면 그뿐일세.
 아무리 그러하나 나도 세상 사람으로
 무단(無端)⁷¹히 사죄(死罪)⁷² 없이 모함 중에 든단 말가.
 이 운수 아니라면 무죄한들 면할쏘냐.
 하물며 이내 집은 과문지취(科門之聚)⁷³ 아닐런가.
 아서라, 이내 신명. 운수도 믿지만은
 감당도 어렵지만 남의 이목 살펴두고,
 이같이 아니 말면 세상을 능멸한 듯
 관장을 능멸한 듯 무가내(無可奈)라 할 길 없네.
 무극(無極)한 이내 도는 내 아니 가르쳐도
 운수 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받아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내 없어도 당행(當行)74일세.
 행장(行裝)을 차려 내어 수 천리를 경영하니
 수도하는 사람마다 성지우성(誠之又誠)75 하지마는
 모우미성(毛羽未成)76 너희들을 어찌하고 가진 말고.
 잇을 도리 전혀 없어 만단효유(萬端曉諭)77 하지마는
 차마 못한 이내 회포 역지사지(易地思之) 하여서라.
 그러나 할 길 없어 일조분리(一朝分離)78 되었더라.
 멀고먼 가는 길에 생각나니 너희로다.
 객지에 외로 앉아 어떤 때는 생각나서
 너의 수도 하는 거동 귀에도 생생하며
 눈에도 삼삼하며, 어떤 때는 생각나서
 일사위법(日事違法)79 하는 빛이 눈에도 거슬리며
 귀에도 들리는 듯, 아마도 너의 거동
 일시위법(一時違法)80 분명하다. 명명(明明)한 이 운수는
 원한다고 이러하며 바란다고 이러할까.
 아서라, 너의 거동. 아니 봐도 본 듯하다.
 부자유친(父子有親) 있지마는 운수조차 유친(有親)이며
 형제일신(兄弟一身) 있지마는 운수조차 일신(一身)인가.
 너희 역시 사람이면 남의 수도 하는 법을
 응당히 보지마는 어찌 그리 매몰(昧沒)81한고.
 지각없는 이것들아 남의 수도 본을 받아
 성지우성(誠之又誠) 공경해서 정심수신(正心修身) 하여서라.
 아무리 그러해도 이내 몸이 이리 되니
 은덕이야 있지마는 도성입덕(道成立德)82 하는 법은
 한 가지는 정성이요, 한 가지는 사람이라.
 부모의 가르침을 아니 듣고 낭유(浪遊)83하면
 금수(禽獸)에 가직하고84 자행자지(自行自止)85 아닐런가.
 우습다 너희 사람 나는 도시 모를레라.
 부자형제(父子兄弟) 그 가운데 도성입덕(道成立德) 각각이라.
 대저 세상 사람 중에 정성 있는 그 사람은
 어진 사람 분명하니, 작심(作心)으로 본을 보고
 정성 공경 없단 말가. 애달하다. 너희들은
 출등(出等)86한 현인들은 바랄 줄 아니로되,
 사람의 아래 되고 도덕(道德)에 못 미치면
 자작지얼(自作之孽)87이라도 나는 또한 한이로다.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道德)이라.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득(不勞自得)88 된단 말가.
 생각 없는 이것들아 나를 믿고 그러하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서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89 하단 말가.
내 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 믿고
해몽(解蒙)90 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 폐(廢)코
수도(修道)하기 힘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道德)이라.
문장(文章)이고 도덕(道德)이고 귀어허사(歸於虛事) 91 될까 보다.
열세 자92 지극하면 만권시서(萬卷詩書) 무엇하며
심학(心學)이라도 하였으니 불망기의(不忘其意) 하여서라.
현인군자(賢人君子) 될 것이니 도성입덕(道成立德) 못 미칠까.
이같이 쉬운 도를 자포자기 한단 말가.
애달프다, 너희 사람. 어찌 그리 매몰(昧沒)한고.
탄식하기 괴롭더라. 요순(堯舜) 같은 성현들도
불초(不肖)93 자식 두었으니 한할 것이 없다마는,
우선에 보는 도리 울울한 이내 회포
금차94 하니 난감이요 두자 하니 애달파서,
강작(強作)히95 지은 문자 구구자자(句句字字) 살펴내어
방탕지심(放蕩之心)96 두지 말고 이내 경계 받아 내어,
서로 만날 그 시절에 괄목상대(刮目相對) 되게 되면
즐겁기는 고사하고 이내 집안 큰 운수라.
이 글 보고 개과하여 날 본 듯이 수도하라.
부디부디 이 글 보고 남과 같이 하여서라.
너희 역시 그러다가 말래지사(未來之事)97 불민(不敏)하면
나를 보고 원망할까. 내 역시 이 글 전해서
효험 없이 되게 되면 네 신수 가련하고,
이내 말 헛말되면 그 역시 수치로다.
너희 역시 사람이면 생각 생각할까.

안심가

현숙(賢淑)한1 내 집 부녀 이 글 보고 안심하소.
대저 생령(生靈)2 초목군생(草木群生)3 사생재천(死生在天) 아닐런가.
하물며 만물지간(萬物之間)에 유인(唯人)이 최령(最靈)일레.4

[각주]

- 1) 구미 용담 : 경북 경주 근교 구미산(龜尾山) 아래의 용담정(龍潭亭).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가 한울님께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내려 받은 곳이다.
- 2) 자호(字號)이름 : 작자 최제우의 자와 호와 이름. 이 때 최제우가 자신의 자를 성묵(性默) 호를 수운(水雲)이라 하고, 이름을 제우(濟愚)로 바꾸었다고 한다.
- 3) 신명(身命) : 몸과 목숨.
- 4) 윤산(潤産) : 재산을 불림.
- 5) 근력기중(勤力其中) : 그 속에서 부지런히 힘씀.
- 6) 악의악식(惡衣惡食) :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옷을 입음. ↔ 호의호식(好衣好食).
- 7) 효박(洵薄)한 : 인정이나 풍속이 어지럽고 가벼운.
- 8) 탕패산업(蕩敗産業) : 부모님께 물려받은 세업을 망침.
- 9) 자아시(自兒時)로 : 어렸을 때부터.
- 10) 부화부순(夫和婦順) : 부부 사이가 화목함.
- 11) 불인지사(不忍之事) : 차마 하지 못할 일.
- 12) 천생만민(天生萬民) : 하늘이 만민을 냄.
- 13) 필수기덕(必授其德) : 반드시 그 덕을 줌. 다른 이본에는 필수기직(必授其職)으로 되어 있다.
- 14) 명내재천(命乃在天) :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음.
- 15) 한울님 : 동학(천도교)에서의 하느님.
- 16) 녹(祿) : 옛날 관원에게 지급하던 급료로, 여기서는 먹고 살 거리. 녹봉(祿俸).
- 17) 기험(기험) : 험하고 사나움. 기구(崎嶇).
- 18) 무왕불복(無往不復) :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음.
- 19) 적선적덕(積善積德) : 선과 덕을 쌓음.
- 20) 자전자시(自前自是) : 이전 또는 이로부터.
- 21) 청이불문(聽而不聞) : 들려도 귀담아 듣지 않음.
- 22) 시지불견(示之不見) : 보여도 눈여겨 보지 않음.
- 23) 효유(曉諭) : 알아듣게 타이름.
- 24) 칠팔삭(七八朔) : 칠팔 개월.
- 25) 무극대도(無極大道) : 끝없이 큰 도. 곧 최제우가 터득한 동학의 도이다.
- 26) 정심수신(正心修身) : 마음과 몸을 바르게 가다듬음.
- 27) 전만고(前萬古) 후만고(後萬古)를 : 아득한 과거와 까마득한 미래를.
- 28) 만단의아(萬端疑訝) : 온갖 의심스럽고 이상한 마음.
- 29) 무가내(無可奈) : 가히 어찌할 수가 없음. 무가내하(無可奈何). 막무가내(莫無可奈).
- 30) 사양지심(辭讓之心) : 사양하는 마음.
- 31) 문의지심(問議之心) : 문의하는 마음.
- 32) 편언척자(片言隻字) : 한 마디 말과 몇 자의 글.
- 33) 동귀일체(同皈一體) : 한울님 마음으로 함께 돌아가 하나가 됨. 천도교에서 인간의 정신적 결합을 뜻하는 말.
- 34) 세간중인(世間衆人) 부동귀(不同皈) :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즉 세상 사람들

과 같은 길을 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35) 비위(脾胃) : 아니꼽고 싫은 일을 잘 견디는 힘.

36) 개제(愷悌) : 용모와 기상이 화락하고 단아함.

37) 총명노둔(聰明魯鈍) : 총명함과 노둔함.

38) 의아(疑訝) : 의심스럽고 이상함.

39) 낙지이후(落地以後) : 세상에 떨어진 이후. 세상이 생긴 이후.

40) 포태지수(胞胎之數) : 아이를 잉태할 운수.

41) 격치만물(格致萬物) :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밝힘.

42) 출등인물(出等人物) : 빼어난 인물.

43) 비비유지(比比有之) : 어떤 일이나 현상이 흔히 있음.

44) 재승박덕(才勝薄德) : 재주는 많은데 덕이 부족함.

45) 아유구용(阿諛苟容) :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레 굽.

46) 가소절장(可笑絕腸) :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스움.

47) 포덕천하(布德天下) :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펼침.

48) 차례도업(次第道業) : 도를 닦는 차례.

49) 무위이화(無爲而化) : 애써 공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하여 잘 이루어짐.

50) 심독희(心獨喜) 자부(自負)로다 : 마음이 홀로 기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다.

51) 자소시(自少時) : 젊었을 때부터.

52) 여광여취(如狂如醉) : 미친 듯하고 취한 듯함.

53) 출세(出世) : 숨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옴.

54) 공로(空老) :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헛되이 늙음.

55) 중심(中心) : 마음 속. 심중(心中).

56) 일소일파(一笑一罷) : 한번 웃고 그만 둠.

57) 불승기양(不勝其揚) : 그 양양함을 누를 수 없음.

58) 통개중문(通開中門) : 중문을 옴.

59) 불승감당(不勝堪當) : 감당할 수가 없음.

60) 명명기덕(明明其德) : 한울님께 받은 덕을 밝히고 밝힘.

61) 승기자(勝己者) : 자기보다 나은 사람.

62) 무근설화(無根說話) : 근거 없는 이야기.

63) 향중(鄉中) : 향원의 동아리. 향원 일동.

64) 무인지경(無人之境) :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곳.

65) 문운(門運) : 한 가문의 운수.

66) 흉언괴설(凶言怪說) : 흉한 말과 괴이한 이야기.

67) 육친(肉親) :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

68) 살부지수(殺父之讐) : 아버지를 죽인 원수.

69) 은원(恩怨) : 은혜와 원한.

70) 조걸위학(助桀爲虐) : 중국 고대 은나라의 폭군이었던 걸을 도와 학정을 조장한다는 것으로, 악인의 악행을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다.

- 71) 무단(無端)히 : 까닭 없이. 공연히.
- 72) 사죄(死罪) : 죽을 죄.
- 73) 과문지취(科門之聚)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은 집안.
- 74) 당행(當行) : 마땅히 행하여짐.
- 75) 성지우성(誠之又誠) : 정성스레 하고 또 정성스레 함.
- 76) 모우미성(毛羽未成) : 털과 깃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 새처럼 사람이 아직 어리고 미숙함.
- 77) 만단효유(萬端曉諭) : 갖가지로 깨우치고 타이름.
- 78) 일조분리(一朝分離) : 하루아침에 서로 헤어져 떨어짐.
- 79) 일사위법(日事違法) : 날마다 하는 일이 법도에 어긋남.
- 80) 일시위법(一時違法) : 한때 법도를 벗어남.
- 81) 매몰(昧沒) : 어둡고 흐려 분명하지 아니함.
- 82) 도성입덕(道成立德) : 도를 이루고 덕을 쌓음.
- 83) 낭유(浪遊) :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
- 84) 가직하고 : 가깝고.
- 85) 자행자지(自行自止) :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함.
- 86) 출등(出等) : 같은 부류에서 뛰어남.
- 87) 자작지열(自作之孽) : 자기 스스로가 만든 일 때문에 생긴 재앙.
- 88) 불로자득(不勞自得) : 힘 들이지 않고 저절로 얻음.
- 89) 사근취원(捨近取遠) : 가까운 것은 버리고 먼 것을 취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나 차례를 바꾸어 함을 일컫는 말.
- 90) 해몽(解蒙) : 어리석음에서 벗어남.
- 91) 귀어허사(歸於虛事) : 헛된 일이 됨.
- 92) 열세 자 : 열세 자의 주문.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가 그것이다.
- 93) 불초(不肖) : 아버지의 덕망이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함.
- 94) 금차 : 금(禁)하자.
- 95) 강작(強作)히 : 억지로.
 - 1) 현숙(賢淑)한 : 어질고 정숙한.
 - 2) 생령(生靈) : 살아있는 영혼.
 - 3) 초목군생(草木群生) : 식물을 비롯한 살아 있는 모든 것들.
 - 4) 유인(唯人)이 최령(最靈)일레 :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하네.
- 96) 방탕지심(放蕩之心) : 방탕한 마음.
- 97) 말래지사(未來之事) : 마지막에 다가올 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